

## 대학 평가의 문제 ; 연구와 교육

양진건 제주대 사범대 교수

몇 해 전, 영국의 고등교육재정협의회가 발표했던 연구평가(Research Assessment Exercise) 개선을 위한 협의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영국의 연구평가는 각 대학에 배분하는 일반재원 중 연구비보조금의 배분을 위해 4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고등교육의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금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고민이 큰 모양이다.

특히 이 협의서에서 필자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연구보다도 교육을 중시하는 스태프에 대해 연구평가에 참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적당한가?' 하는 질문 항목이다. 물론 협의서에 제시된 42개의 질문 항목 모두가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왜 이 항목이 유난히 관심을 끄는 것인지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왕립협회(The Royal Society)가 발표한 고등교육개선에 관한 성명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보면 연구평가에 기초를 둔 자금배분에 의해 연구의 선택성을 높여야 하지만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 연구평가가 가져오는 의도하지 못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운영과 교육에 의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요원에 대해서는 연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국 고등교육재정협의회가 각 고등교육기관에 배분한 보조금 내역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크게 교육비와 연구비로 나누어 지는데, 이를테면 '98년도 보조금 34억 파운드 가운데 연구비로 지급된 것은 약 7억 400만 파운드로서 연구비 중 고등교육재정협의회가 약 4년에 한 번 발표하는 각 학과의 연구업적평가 결과에 기초를 두고 배분되는 Quality-related Research Funding 부분은 연구비 배분에서 약 97%를 차지하기에 이르러 연구업적평가에 기초를 둔 선택적 배분이 더욱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연구업적평가에 기초를 둔 선택적 배분을 추진하는 한편 배분액이 전년을 크게 밀돌고 있는 대학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하여 연구보다는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대학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나 또는 지역성, 전문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 또한 거센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 영국의 신문 '가디언'은 주로 연구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대학평가와는 달리 교육 분야만을 평가한 대학 순위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가디언'은 최근 대학 진학 예정자를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 순위 결과를 내놓았는데, 기존의 대학평가가 연구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 분야는 다소 소홀히 한 점에 비춰 이번 시도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신문은 40개 학과의 교육 부문만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대학평가가 지나치게 연구 분야만이 강조되어 서열이 가려지고 더욱이 이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통적인 학과에서는 연구 분야가 우수한 과제의 권위 있는 대학들이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직업적 성격이 강한 학과에서는 신설 대학들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상 영국의 얘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방대학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모형을 연구중심, 교육중심, 산업중심으로 나누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원 중심 대학, 대학원 병설 대학, 학부 중심 대학, 학부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인지 우리 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구 중심 또는 대학원 중심 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교육 중심이나 학부 중심을 지향하게 되면, 마치 문제 있는 삼류대학 정도로 내외가 인식하는 실정에서 어찌 영국의 얘기가 남의 일만 같겠는가.

이런 현상은 최근 대학 내에서도 연구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최근 들어 교수들의 학술논문 및 저서 등 연구업적을 집계하여 전산화하고 있고 연구업적집으로 그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이 전산화 작업에서는 연구업적으로 집계하는 실적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종류별로 업적물의 내용

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업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교수들로부터 매년 발표한 연구업적의 수를 제출받아 그 합계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연구업적평가에서 교육영역의 평가를 위해 학기당 담당강좌 학점 수, 주당 강의일수, 학기당 휴강 횟수, 수업계획서의 배포, 수업자료의 활용, 교수방법의 다양성, 수업평가방법의 다양성, 학생강의평가 실시, 수업 외 학생지도, 교육과정 개선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도의 비중은 연구영역에 비해 별 것이 아니다.

필자는 세삼스럽게 여기서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어떤 식으로든 교육영역이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지대계의 국가 교육사업이 자칫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이나, 대학 내의 교수 지원이 지나치게 연구평가에만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과 연구는 동전의 앞뒷면이건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상식이 외면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분명 개선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

#### 양진건

한양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주대 사범대 교수, 기획연구부 실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제주교육행정사』가 있다.